

전북-경북 동서통합 철도망구축 탄력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사업 정부 계획 상반기중 고시계획 반영

전북과 경북이 영호남 동서통합 SOC로 공동 추진한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됐다.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2016~2025)' 수립안에 새만금 신항~대야와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사실상 반영된 것이다. 3월 전북도에 따르면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개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동서횡

단철도인 새만금~대야와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 사업이 반영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고시예에 정이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새만금~대야간 철도건설은 착수사업으로, 전주~김천간 철도는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추가 검토대상사업도 이번 3차 계획에서는 필요시 계획기간 내에 착수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이번 동서 간 국가철도가 건설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화합에도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되고 동·서 방향의 교통망은 매우 취약해 영·호남 간 교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단절된 교통망을 연결하기 위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와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은 양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도 관계자는 "이처럼 동·서간 교통망이 연결되면 서해안 권과 동해안 권의 인·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돼 새만금 신항만이 대 중구 수출·입 전진기로서 자리매김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도-농어촌공사, 새만금 전력시설 지중화 총력

지난 달 29일 KDI(한국개발공사)가 새만금 농생명부지 전력보급시설의 지중화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지중화 추진에 대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지난 달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KDI는 새만금 농생명부지 전력보급시설의 지중화 설계 적정성 검토를 위해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도와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농생명부지의 무인행기를 이용한 직파양농과 항공방제 등 첨단 농업이 활용될 지역으로 전력공급시설의 지상설치는 이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KDI측에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전력 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한 쾌적한 새만금 조성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새만금 농생명부지는 새만금 선도시업으로 미래 농업의 창조경제 실현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전기전력 공급시설의 지중화가 강조돼 새만금 기본계획

123쪽에 '전력공급망의 지중화를 통해 새만금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지난 해 사업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전력공급망 47.3km에 대한 사업비로 57억만 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새만금 농생명부지의 비전과 새만금 지역 특성상 해무와 강풍 등 바다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준설로 매립에 따른 지반의 지지력이 취약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중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지중화시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 및 교체비용이 지상설치(11억 5,500만원)보다 연간 11억 8,000만원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도는 기재부에 43.5km에 대해 182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재요청한 상태이고 기재부는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설계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다.

/정영수기자

전북도 찾아가는 복지행정 강화

지난 해 7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전북도가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발 빠른 대응에 나서 복지사각지대 제거에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 해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26,811명을 추가 선정했다. 올해부터는 위기가정을 속도감있게 지원하기 위해 단점 각종 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의 정보자료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가 의심되는 명단을 해당 시군에 제공, 위기가정을 사전에 발굴·조사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다.

또한 도는 도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2016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03,248명(도인구의 5.5%)에게 7천119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 이들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영수기자

새만금 노출부지 화재예방 협의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3일 김제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지역 노출부지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를 위한 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새만금 갈대밭에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주민 계도 및 공감대 형성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화재상황 공유, 진화 지원 등 신속한 상황전파와 조기진화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정영수기자



송하진도지사는 시·군 민생탐방 일환으로 순창군 풍신면 도치마을 경로당을 방문했다.

송하진 도지사 남원·순창 민생 탐방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3일 2016년 시·군 릴레이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남원시와 순창시를 방문했다.

먼저, 이날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방문한 송 지사는 "남원은 청정문화를 바탕으로 생태 교육의 도시, 힐링도시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면서 "조만간(생태교육장에) 오토 캠핑장이 들어서실 예정으로 비래봉 대표 축제들과 잘 연계한다면 좋은 관광 인프라가 조성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월 시장을 찾은 송지사는 "백제와 신라 두나라 백성들의 물물교환 장소로 시작된 인월 시장은 많은 스토리가 있는 시장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색을 발굴해 고객이 즐겨 찾는 매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자"고 말했다.

오후에는 순창군 남쪽 끝단인 풍산면 도치마을 경로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경로당이 노후생활의 행복충전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 노인건강 기구 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등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남 화순에서 순창군으로 이전한 (주)한보기업(대표 박현식, 65세)을 방문해 향토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 할 수 있도록 대표와 임직원들을 만나 격려와 힘을 실어 주었다.

송 지사는 "이번 한보요업을 방문한 것은 국내 타일업계 시장점유율 2위를 자랑하는 유망기업이기도 하지만, 군민 14명을 채용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향토기업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대표의

열정과 추진력, 노후와 기술력에, 행정의 지원이 합쳐진다면 전북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현식 대표는 "향후 인재 채용시 도내 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광주지역 등에서 출퇴근 하는 직원이 많으나 가급적 전 직원이 순창으로 전입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3일 남원 민생탐방에는 이원찬 남원시장, 장종한 시장의, 도의회 이상현 부의장, 남원시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 김종관 의원 등이 함께 하고 순창 민생탐방에는 황숙주 순창군수, 이기자 군의장, 최영일 도의원, 정계수 부의장, 신정아, 손준주, 손종석 군의원 등이 동참했다.

/정영수기자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15,867원(80kg)확정

2015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150,659원(80kg)으로 확정됨에 따라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지급단가가 15,867원(80kg)으로 결정됐다.

변동직불금은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10월~익년1월)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앞서 변동직불금은 2012년(2011년산 쌀) 이후 3년간 쌀값이 높아 지급되지 않고 지난 해 2014년산 쌀의 수확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4년만에 지급된 바 있다.

올해는 2015년산 쌀값이 2014년산 쌀값보다 떨어져 농가에 전년대비 733,388원(ha당) 증가된 금액이 지원

된다. 이번 변동직불금은 도내 76,044농가(113,862ha)에 약 1,210억원이 지원되며 설명절 전 우선적으로 절반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3월말까지 농가별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직불금 신청일이 전년 대비 한 달 가량 앞당겨진만큼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농가에는 국비로 지급하는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외에 추가적으로 도 자체 직불금과 시·군 자체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ha당 2,602,621원의 직불금이 농가에 지급됐다.

/정영수기자

전주보건소, 설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구축

전주시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이 시민들의 건강을 틈틈히 돌보기로 했다.

전주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 총 522개소를 당직 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보건소 내에는 비상 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129(보건복지콜센터)

와 연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응급진료 의료기관 및 상황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취약계층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명절 당일 진료를 실시하고, 중·중상·도덕진료소는 연휴기간 동안 당번제로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설 연휴기간 중 집단설사 환자 발생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감염병 전파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쉽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 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 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 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강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정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